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마르 6,7)



(He Sent them out Two by Two), James Tissot (1836-1902)

[제1독서]..... 아모 7,12-15

[제2독서]..... 에페 1,3-14

[화답송] ..... 시편 85(84),9ㄱ-ㄴ과 10.11-12.13-14  
(◎ 8 참조)

[복음 환호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복음] ..... 마르 6,7-13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성가 안내]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 입당성가: [4] 찬양하라
-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68] 오묘하온 성체  
[178] 성체 앞에
- 파견성가: [65] 예루살렘 복되고

##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sup>7</sup>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sup>8</sup>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파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sup>9</sup>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sup>10</sup>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sup>11</sup>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sup>12</sup>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sup>13</sup>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Jesus summoned the Twelve and began to send them out two by two  
 and gave them authority over unclean spirits.

He instructed them to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but a walking stick—  
 no food, no sack, no money in their belts.

They were, however, to wear sandals  
 but not a second tunic.

He said to them,  
 “Wherever you enter a house, stay there until you leave.  
 Whatever place does no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  
 leave there and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in testimony against them.”

So they went off and preached repentance.

The Twelve drove out many demons,  
 and they anointed with oil many who were sick and cured them.

## 묵상

바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왔으며,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운명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파견되어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때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여 제자들이 능력에 대한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도구로 쓰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숙명을 사랑하도록 이끌고 계심을 먼 훗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베텔에 파견된 아모스 예언자는 자신이 처음부터 예언자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자신을 붙잡으시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고 명하셨기에, 박해와 반대가 두려웠지만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숙명 같은 삶을 견디고 사랑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병든 노부모를 모시고, 장애를 지닌 자녀를 돌보며, 누군가의 잘못을 짊어져야 할 순간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 지금은 무거운 십자가이겠지만, 부활의 희망으로 바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복음과 성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

제임스 티소트(James Tissot, 1836-1902)의 <열두 사도들의 파견>은 그가 1886-94년에 수채화로 그린 그리스도의 생애 연작 중 한 작품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색인 흰색 옷을 입고 사도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손짓하며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몸에 나무가 붙어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처럼 사도들에게 그들을 제공해주고 계신다. 아마도 사도들은 전도여행 중에 힘들 때마다 그들에게 늘 그들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체휼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파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마르코 6,8-11)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말씀이다. 복음 선포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열두 사도들의 파견>, James Tissot

얻지만 그분을 배척하면 단죄를 받는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 어떤 제자는 턱을 괴고 어떤 제자는 손을 모으고 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다. 이제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줄 것이다.

우리의 사명도 회개의 선포와 악령의 추방과 병자의 돌봄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의 선포이고, 선을 많이 행하여 악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령 추방이며,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주고 그들의 애기를 들어주는 것이 병자 돌봄이다. 예수님께 의지하며 이것들을 행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그들이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말씀을 읽는 이는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김수환 추기경>

‘성서와 함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말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또는 적어도 무엇과 함께 있습니다. …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나의 죄, 나의 부족, 나의 못남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성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책입니다.

‘성서와 함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와 같은 말입니다.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 · 미사 시간 찾기

www.masstimes.org



## 종교 지도자들, 한마음으로 '중동 평화' 기원

교황, 동방 정교회·가톨릭 지도자 등과 이탈리아 바리에서 기도회... '무관심에서 깨어나라' 강조

프란치스코 교황이 폭력과 박해로 신음하는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 무관심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했다. 교황은 7일 동방 정교회와 동방 가톨릭교회 지도자 19명을 이탈리아 남동부 항구도시 바리로 초대해 중동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에는 동방정교회를 대표하는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 이집트 콥트 정교회의 타와드로스 2세 교황(콥트교회 수장 호칭), 러시아 정교회 외무담당 힐라리온 대주교 등 동방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교황과 20명 가까운 동방 교회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중동 평화를 기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황은 이들과 성 니콜라스 성당에 들어가 니콜라스 성인 유해 앞에서 기도하고, 갈라진 형제들의 일치를 염원하면서 기름 등잔에 불을 밝혔다. 교황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밝을 때뿐만 아니라 역사의 어두운 순간에도 빛나는 세상의 빛”이라며 “이 ‘희망의 불’ 이 계속 퍼져 나가 어둠을 밝히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교황은 연설에서 중동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교황은 “중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 프란치스코 교황이 7일 성 니콜라스 성당 앞에서 중동 평화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교황과 동방 교회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중동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렸다.

문히신 땅인 동시에 신앙의 빛이 세계로 퍼져나간 곳”이라며 “하지만 오늘날 중동은 패권과 부를 쫓는 다른 이들에게 짓밟혀 눈물 흘리고 있다” 고 통탄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공모한 침묵 속에서 전쟁과 파괴, 근본주의 먹구름이 이 땅을 뒤덮고 있다” 고 질타했다. 교황은 “항상 무기가 폭력을 부채질한다” 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지역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강대국들을 비판했다.

교황과 동방교회 지도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리며 중동 평화를 기원하였고 비공개 회의를 열어 중동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가톨릭 평화신문>

## 2019년 파나마 세계청년대회 참가하는 교황

교황청 공보실장 겸 대변인 그렉 베크는 7월 9일 월요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2019년 파나마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행사가 개최되는 다음날 도착해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참가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 번째로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첫 번째 참가는 지난 2013년 교황 선출 후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였고, 이어 2016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세계청년대회가 두 번째였다.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교황과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로, 보통 3년마다 개최된다. 이 행사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의 보편성을 체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2019 파나마 세계청년대회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적으로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7월 9일 월요일 “파나마 국민들의 기쁨과 흥분을 공유한다”는 트윗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교황은 지난 2017년에 이미 2019년 세계청년대회 행사를 위한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행사를 위해 각자 순례를 지속함으로써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바라보라고 젊은이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리아는 집에만 머물지 않았습시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안락함과 안전만을 찾는 집순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신앙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우리 어머니 마리아의 전 생애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http://kr.radiovaticana.va>)



# WorkCamp 2018



## WorkCamp 2018 SPC Campers

AARON WHANG, BRIAN KIM, CHRIS LEE, DIANNE HWANG, DYLAN JANG, HEE JEAN JOO, HEE JOO LEE, ISABELLA KIM, JAMES SUN-WOO, JOYCE CHOI, JUNG WOO KWON, MATTHEW HARGRAVE, PAUL RHEE, PETER CHU, PETER SHIN, SAECHAAN HONG, SOPHIA LEE

WorkCamp is a weeklong camp experience for high school youth to serve our brothers and sisters in need by making their homes safer, warmer, drier, and greener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while also having the opportunity to grow in our Catholic faith.

830 youths came together at Massaponax High School in Fredericksburg for the 32nd diocesan WorkCamp June 23-29, sponsored by the diocesan Office of Youth, Campus and Young Adult Ministries.

Ed Gloninger, the WorkCamp coordinator, said the event is an intentional Christian community to provide an opportunity of direct service for the youths of the diocese.

***“Our mission is to bring the youths closer to Jesus through direct service,”*** he said. ***“This is an opportunity for them to go and serve those in their diocese.”***

Not only does WorkCamp involve more than 800 teenagers, much of the behind-the-scenes work is done by more than 160 young adult volunteers.

With the support of Fr. Paik and Fr. Bang, St. Paul Chung had 17 teens, four adult leaders and four contractors participated this year at camp.

“People may think the work camp as simply doing actions for the people in need. However, through this work camp, we as participants learned how to show positivity, how to be kind to all people and how to love others and willing to help them with open minds. We also learned that God knows all our abilities, strengths and even weaknesses, and lead us to the right way which can make a huge difference and change the people. As the teenagers, sometimes our beliefs will be attacked and we may stand in the midst of confusion and wandering. But, don't forget! God is our Father and we all are his children!”

-Dylan Jang, 11<sup>th</sup> grade



#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규준 요한 신부



‘사람’이 참으로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며 살더라도, 어떤 그리움과  
공허함 때문에 무기력지고 나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곳 페루 뿌갈빠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지금의 순간은 선교가 가져다 주는 행복과 기쁨을 넘어,  
마음 한구석에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환경과 언어,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서투른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해주는 한끼 밥상이 그리웠는지도 모르죠!

그런 저에게 여러분들은,  
이곳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큰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하느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을  
체험했고, 다시금  
힘 내어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주간을  
선물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작은 행복과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선교일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반성하며,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한다면,  
누군가 나로 인해 웃고 있고,  
나도 저들처럼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의 결실일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을 넘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부모님의 손길과 품이 그리운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었던 이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과 마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들의 목마름까지 채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분명 여러분들로 인해 이곳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선교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주임 신부님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년에도 이런 선교의  
삶을 더 진솔하게 나누기  
위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 뿌갈빠에서 이규준 요한 신부 드림

**1** 2018 - 2019년도 사목보고회

- 일시: 7월 29일(일) 오후 1시, 성당 (오후 12시 점심식사)
- 참석 대상: 사도임원, 재정위원, 사도회 임원, 구역봉사자 (소공동체), 단체장(신심 및 활동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CD, CYO) 교감, 하상문화원 원장, 하상방송 코디네이터, 하상 성인학교 교장/교감, 하상 한국학교 교장/교감,
- 문의: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2**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7월 15일(일) 오전 11:30(B-3,4)

**3**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7월 15일(일) 오전 11:30(A-1,2,3,4)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7월 15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5** 사도임원회

- 일시: 7월 20일(금) 오후 8시(B-1,2)

**6** CYO 여름 캠프 신청

- 대상: 9학년 - 12학년
- 일정: 7월 19일(목) - 7월 22일(일)
- 장소: Camp Round Meadow, MD
- 신청: 미사 후(8시, 10시, 11시 40), 친교실
- 문의: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7** 복사단 모임

- 일시: 7월 22일(일) 오후 12:30(B-1,2)

**8** K of C 모임

- 일시: 7월 22일(일) 오전 11:30(A-1,2)

**9** CCD 여름 캠프 신청

- 대상: 3학년 - 7학년(새 학기 4학년-8학년)
- 일정: 8월 3일(금) - 8월 5일(일)
- 장소: Pine Creek Retreat Center, Grove, VA
- 신청: 8시, 10시, 11시 40 미사 후, 친교실

**10** 하상 후보 광고비 납부

- 하상 후보 광고주 여러분들은 광고비를 결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8년 이나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 피정 안내 (동중부 CLC 개최)

- 주제: '쉼' (지도신부: 정만영 끝배 / 예수회)
- 일시: 8월 10일(금) - 8월 14일(화)
- 장소: 로올라 피정의 집  
9270 Loyola Retreat Rd, Faulkner, MD 20664
- 참가인원: 선착순 50명
- 문의: 임윤호 요한 (703)201-9506

**12** 주일학교 등록 안내

- 2018-2019 주일학교 등록을 하상관 로비에서 받습니다.
- 신청: 7월 8일-8월 12일, 10시 미사 후
- 등록비: 한 자녀 \$80 / 한 가정 두 자녀 \$15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윤정보일 (703)371-3589

**13** 알링턴 교구 성당 시설 안전수칙 점검

- 교구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수칙 점검 중 소방법과 안전관계로 신자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들입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 복도에 있는 모든 문들과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들은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 하상관 뒤쪽에 있는 비상문들은 비상시에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 열쇠를 사용하는 문에는 고정 받침대(도우 스톱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바비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그릴 사용시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문의: 시설부장 Danny Choi (703)863-1339

**14** 베드로회 월례회의가 7월 15일(일)에는 없습니다.

**15** 요한회 월례회의가 7월 22일(일)에는 없습니다.

**16** 첫 영성체식 사진을 사무실에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선교: 사제와 사목 직무

사목 직무를 수행하며 피로와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제들이 주님과의 친교와 형제 사제들과의 우정에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5주간 : 1 역대 13-18, 요한 19장

KACM TV 하이라이트

7월 19일(목) 오후 5:00-6:00  
7월 20일(금) 오후 8:00-9:00  
7월 22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님 따라 한평생**: 예수회 신부로 50여년 동안 한국에서 봉사해온 다니엘 키스터 신부의 한국 사랑 이야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7월 8일(연중 제14주일)

주일헌금	\$ 7,629.00
교무금	\$ 13,35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5,280.00
특별헌금	\$ 0.00
2차헌금	\$ 0.00
<b>합계</b>	<b>\$ 26,259.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IBM 파킹장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주차장 → 성당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10:20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오전 11:55 - 12:30 (봉사자 차량)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근(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천원후(마리아), 김태명(사문),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사문),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고필순(젬마), 백명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나)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로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병기(펠릭스), 윤병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이효천(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15일(일)	연중 제15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베드로 월례회의 없음, 파티마 세계사도직 임원회의(오전 11:30, 하상관)
16일(월)	연중 제15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17일(화)	연중 제15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18일(수)	연중 제15주간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성서 통독반(오후 8시)
19일(목)	연중 제15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 휴교, CYO Summer Camp(22일까지), 재정위원회(오후 8시, 회의실)
20일(금)	연중 제15주간	하상 한국학교 휴교,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사도 임원회(오후 8시, B-1,2)
21일(토)	연중 제15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7월 22일(일)	연중 제16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8시미사 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요한회 월례회의 없음, K of C 모임(오전 11:30, A-1,2), 복사단 모임(오후 12:30, B-1,2)

♡ 혼인공시

◆ 서경원씨 자 : 서동민(크리스토퍼)

◆ 정명환씨 녀 : 정환희(에스터)

• 일시 : 2018년 7월 28일(토) 오후 4시

• 장소 : 천주교 성당 바로 옆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 (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b>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스킨케어 소유</b>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이용희 변호사</b>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b>웨딩사진 전문</b> Soowonlee.com 703-678-9215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김응권 척추신경</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b>첼로 레슨</b>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생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b>레드핀 소독</b>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운 (마카엘) 703-881-1155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